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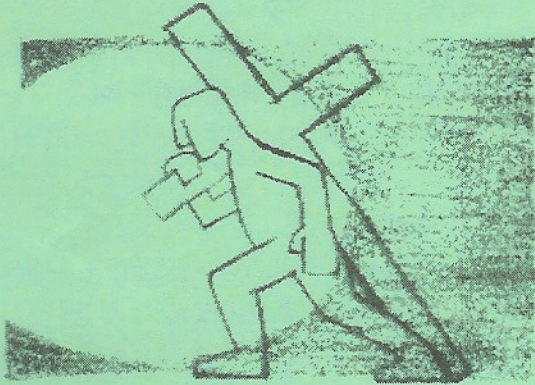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3주일(순교자 성일)
제27권 41호 (다해) 2007·9·9

[묵상]



눈뜸

내 삶에서 제일 소중한 걸 다시 보게 하시고
오늘의 노고가 사랑의 선물임을 보게 하시고
버려야 다시 충만하게 채워짐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길을 함께 걷는 당신을 보게 하시는.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방학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때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철웅 베드로, 김시형 시릴로
	(생)민마르코, 성엘리사벳과 시몬과 로렌스
주 일 낮 미사	(연)김인영 베드로, 이명수 마리아, 황보금 마리아 데니스 웨버, 김경숙 테레사, 이영자 마리아
	(생)천광락 야고보와 남숙 리디아 가정, 김병수 요한 남가주 M.E.제59차 수강자 부부들과 봉사자 부부들 김은희 안나, 김찬구 요한, 최노완, 김윤이 까리파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9,13-18

화답송 ◎주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었나이다.
 <전례성가 88, 연중 제23주일 C해>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인간의 종락아 돌아가라고. 천 년도 당신의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토막 밤과도 비슷하다◎
 ○당신이 앓아가면, 그들은 한바탕꿈. 아침에 돌아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사들어서 말랐나이다.◎
 ○날 수 쉼 줄 알기를 가르쳐주시어 우리들 마음의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오리까. 당신의 종들을 어여삐 여기소서.◎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주의 어지심인 우리위에 내리옵소서. 우리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제 2독서 필레몬서(Philemon) 9-10.12-17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얼굴이 주님 종 위에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복음 루카(Luke) 14,25-33

영성체송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 하느님, 제 영혼이 주님을 이토록 그리워하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83	343
봉헌	382	270,187
성체	367	306,302
파견	실로암	336

4. 한국 천주교회

▶천주교의 한국 전래

천주교가 우리 조국에 들어온 때는 지금부터 230여 년 전이다.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따르면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프랑스 사람 그라몽(Grammont)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자들의 모임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서학(西學)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승훈은 귀국하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지금의 명동 성당 부근의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선교사가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한 일이다.

▶천주교의 새로운 가르침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의 이념적 근본을 유교에 두고 있었다. 유교 사상과 그 실천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바탕이었다. 따라서 유교에 회의를 품는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실학과 학자들은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적과 함께 접하게 된 새로운 종교, 곧 천주교의 가르침에 빠져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행적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하느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가르침은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라는 엄격한 신분 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온갖 박해를 딛고 성장한 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유교사상에 젖어 있던 당시 지배층은 천주교 신자들을 동양 윤리의 이단자이며, 모든 악의 전형으로 몰아 온갖 박해를 가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백여년 동안 네번에 걸친 커다란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다. 이런 가운데서도 선교사 영입과 성직자 배출을 위해 힘쓰던 조선 천주교회는 1845년 김대건(안드레아)이 중국 상하이 진자상(金家港)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서품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조선인 사제를 맞게됐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는 귀국하여 일년도 채 안된 이듬해 체포돼 순교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예수님의 기쁜소식을 민족과 함께 나누기 위해 혹독한 박해를 견디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배교(背敎)하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단란했던 가정, 잃었던 명예와 가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103명은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 공경하는 성인이었다. ◆CBCK제공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려놓아야 할 것들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접하는 세계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과거에 지녔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에서 자주 다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친정 가정에서 배운 태도나 규칙들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해가 되는 옛것들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만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루카 14,25-33)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 라는 표현은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할 때는 예수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앞자리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제베대오의 아들 야보고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샅꾼들

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마르 1,16-20). 게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관원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루카 5,27-28).

그러나 내려놓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마음이 가는 것만 보이고, 마음이 가는 쪽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학력, 더 나아가 교만함, 질투심, 욕심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있어 자신에게 방해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걷어내어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 정원순 토마스 데 아퀴노 수사 신부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변혜경 율리아나	주일학교 린다 정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오세비오
제1독서자	박진규 라파엘	박진수 스테파노	오테환 바오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니티	주일학교 데이빗 김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지난 주간 합계: 1,355단 ☞ 총 합계: 183,635단

◆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주님을 향해 불타는 신앙을 증거했던 한국순교자들을 높이 드려내는 '순교자 현양대회'가 우리본당 주최로 열립니다. 많이 참여하여 선조들의 뜻을 기립니다.

● 일시: 9월30일(주일) 오전 11시, 성당

● 1부: 현양미사

● 2부: 성극 소멸 공연(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생애)

출연: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외부회원과 기도회원들

● 대건회와 원서부부회가 주일학교 기금마련 음식부스를 마련합니다.

● 협찬: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및 외부회

☎ 김충섭 마틴 총무 213-820-7636

◆ 백삼위 한국학교 개학

● 9월9일(오늘주일) 낮12시, 2층교실에서 개강합니다.

곧 이어 오후 1시부터 강당에서 개학식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목요 교리반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인도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예비자 교리실

◆ 자모회 모임

● 9월9일(오늘주일) 오후 1시, 친교장 뒷뜰 ☎ 371-8636

◆ Saint Margaret Mary 본당 로미타 축제

● 9월9일(오늘 주일) 밤 9시까지 계속되는 본당 축제에 가능한 많이 참여하여 한인 신앙 공동체의 성의를 보입니다.

◆ 제 59차 M.E. 첫 주말 수료자 환영식

● 참가부부: 이상윤 프란치스코 & 혜령 아그네스

최진수 에우세비오 & 정숙 델피나

김근주 토마스 아퀴나스 & 종숙 막달레나

● 9일(오늘주일) 오후 6시, 강당

● 선배 되시는 M.E. 주말부부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3쌍의 새 수료자들을 환영합니다.

◆ 노숙자 도울 봉사자 찾습니다.

● LA 다운타운(4가+5가) Homeless People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동참할 형제자매들을 기다립니다.

● 오늘 주일미사후 라파엘 성당에서 첫 실습모임을 갖습니다.

● 우리 본당의 첫 봉사는 10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 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중입니다

● 등록기간: 9월23일(주일)까지

● 대상: 유치부(K)~12학년

● 등록비: 첫째아이 \$100, 둘째아이 \$80,

셋째아이 \$60, 넷째/다섯째는 무료(23일 이후

등록시는 \$10 추가되오니 미리 신청합니다.)

◆ 주일학교 교사 연수 및 워크샵

● 연수: 9월 15일(토) 오전 9시30분~12시, 강당

강사 김알렉스 신부(토마스성당 본당신부)

청년회와 자모회, 한국학교와 함께하는 모임.

● 워크샵: 9월 15일(토) 오후 1시, 강당

● 문의: 김순희 모니카 ☎ 310-850-6253

◎ 축하합니다 ◎

송영원 크리스티나(송기철 루카씨 장녀)와

도모히로 가가미의 혼례예식이 9월15일 오후 7시30분

토요 특전미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전열	김선제	김선희	김연숙	김완태	김원모
	김윤진	김 은	김종환	김주량	김현숙	노천수
	민기남	박동수	박동화	박순자	박영식	박정희
	박진수	방정복	성지용	안재만	안태갑	오 진
	오명섭	오세정	오호순	유근태	유영균	유우상
	유정복	유호연	육재민	이근모	이명렬	이연행
	이영석	이재용	이종한	이호미	임연조	장영우
	정기은	최길주	최수복	최애경	최귀환	한소옥
	한혜숙	현석주	영희가보라	합계: \$ 5,760		
	미사헌금: \$2,266.75					

성전헌금	권진열	김선제	김선희	김연숙	김원모	김윤진
	김종환	김주량	김현숙	노천수	민기남	박동수
	박순자	박정희	성지용	안재만	오호순	유영균
	유정복	육재민	이근모	이명렬	이영석	이재용
	이종한	이호미	장영우	정기은	최길주	최애경
	최귀환	한혜숙	현석주	영희가보라		
합계 : \$ 3,480						
감사헌금: 익명						

공지 사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세미나

- 9월9일(오늘 주일) 오후 1시 강당에서 있습니다.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9월9일: 토런스 동 1반 (카레라이스 \$3)
- 9월16일: 토런스 북 1,2반 (막국수 \$3)

남가주 소식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 동호회 제1회 정기 연주회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 동호회(Jubilate Korean Catholic Choir)가 제1회 정기연주회로 교회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자선공연을 갖습니다.
- 9월28일(금) 오후 7시 30분, 세인트 빈센트 성당
(621 W. Adams Bl. L.A.)
- 지도신부: 박상대 마르코 신부(백삼위 한인성당 주임)
지휘: 김경숙 클라라(성 마리아 성당)
- 문의: 황베로니카 ☎ 310-279-8184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정기 전시회

- 9월14일(금)~9월27일(목)
- Lee & Lee 갤러리(3130 월서 불리바드 #502)
- 28명의 신자 화가들이 출품하는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1열왕 9장3절) 입니다.
- ☎ 213-365-8285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장터 행사 & 골프대회

- 한국의 날 장터행사에 골롬반 부스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 9월13일(목)~16일(주일)
- 서울 국제공원(올림픽+아드모어)
-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9월29일
다우니 Rio Honda Golf Club ☎ 213-389-4612

◆ 산호세 한국순교자 성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 기념미사 및 축하식: 9월23일 오전 10시 30분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
- 주례사제: 패트릭 맥그라 주교(산호세 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수원교구 총대리)
- ※ 성당주소: 531 E. Weddell Dr.
Sunnyvale, CA 94089

◆ 영어 능통한 분을 찾습니다.

구인 영업관리직, 풀타임
☎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변해경 올리아나 787-7493 9/7(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례 스프라스터카 782-1025	한길선례 스프라스터카 782-1025 9/14(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김지희 체칠리아 539-3396 9/20(목)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시몬, 김철수 320-2425 9/15 오후 7시, 성당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머리아 798-6540	오호순 모니카 213-633-3366 9/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엄세종 그레고리오 373-5662 9/14(금) 오후 8시
	2	임진희 한나 720-7898	이경수 헬레나 530-0357 9/11(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325-6810	임형미 사비나 325-681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	박정희 마리아 715-2609	황지영 안젤라 782-0844 9/14(금) 오후 7시, 성당
	2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9/29/(토), 오후 6시, 리ndon 비치 H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서창호 바오로 257-1784 9/15(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베드로& 요세피나 997-9006 9/14(금),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아나스타시아 544-9460 9/14(금) 오후 7시 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서영교 라파엘 544-6377 9/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9/14(금) 오후 7시30분

테레사 수녀의 천상 시

목에 물기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그 지글거리는 태양에 타 비틀어진 목에
배속에 음식부스러기 마저 보인 지 언제인지도 모르며
그냥 먼지가 풀썩 먼지를 가리어 헛것만 보인다.

너과가 끊어지는가.

억지로 힘들여 팔을 들어 가려운 데를 긁으니
신체 한 조각이 부스러져 고꾸라진다.
여기에 쓰레기처럼 풀썩 주저앉아 있는 이
그 이는 아이다. 여인네요, 노인이요, 사람이다
하나 보기도 버거운데 눈길에 덜컥 훑고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이라. 저들보고

이제 그만... 당신의 말 그대로 따르는 나의 곁에 나타나
시어 이들을 돌보소서. 외치는 나의 기도에 침묵으로...
당신의 가르침 실천하는 나의 주위에 현존하시어
이들을 살리소서. 외마디 절규에 공허함이 돌아와...
나의 잡은 손이 바스러진 지 오래다

같이 통곡하다 내 목소리 없어졌으며
같이 굶어 쓰러지다 나의 얼굴 사라져
오물 속에, 생명이 오물 되어 내 손을 적신다.

어둠, 외로움, 고뇌...
이 지옥이 다름없는 곳에서
나 이미 이들과 하나 되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었거늘
나 얼굴 없이 미소로써, 모든 것을 감추고 나서야 했었다.
가면과 외투를 쓴 그 근저러움에 몸을 떨며...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짐 진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계셨었다지 그 분은
이 세상 끝날 때 까지 그들 곁에 계신다고 했는지 그 분은

그렇다면
이 들은 무언가 ...그 분은 어디 계신가...

그러나
하늘에 와 ...천국에 와...내려다보니

그렇게나 많이 내 품안에서 덜컥 고개를 떨어뜨린
이들의 참담한 외마디와 하나 되느라...십자가의 외마디
소리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못 들었으며
그대지도 내 손에 자국을 깊게 내며 부들거리던
이들의 단 발 신음과 하나 되느라...
십자가의 핏빛 오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본 나는 그랬다. 울고 또 울며 죽으면서도 울었다.
목이 달라붙어 통곡소리 울리지 못하고,
눈물조차 나와 주지 못하는 데도...

웅고된 암울한 현실이 평생 동안 내 세포가 되어,
눈물샘이 고갈되어 버린 나는 "Eloi, Eloi, lama
sabachthani?" 이 말씀을 이해 못하였었다.

그런데
하늘에 와...천국에 와...내려다보니

지성으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오감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라.
보고 있어도 보지 않으며, 만지고 있어도 만지지 말라
갖고 있어도 갖지 않으며, 들리는 것 있어도 들리지 않게 하라.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를 바라라.

케노시스 (kenosis)
교회는 비우는 곳이다.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
교회에서 갖으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라.
무엇을 갖게 해달라며 무엇을 가질 수 있다며,
충동하는 곳이 교회라면 그 곳에서 먼지를 털라.

어두워 보이는 나의 서신 속에서 빛을 찾으라.
비우고 깨끗하여 지면 엄연히 계신 분을 볼 수 있다.
너희와 다르지 않은 끊임없는 회의 속에서도
입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고통과 하나 되어
천국에 와 있는 나의 삶. 그 빛을 입어보라.

혼란과 회의가 너의 옷깃을 스칠지라도,
옷자락을 붙잡지 말라.

사랑은 완전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분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것밖에는 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지고한, 사랑을 지피시었다.

◆ P.V.1반 최진수 애우세비오